

2015. 4. 13 ~ 4. 19 주간

29
VOL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수급 동향

마늘·감자 가격 및 생산 동향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產 농수산물 해외 수출 호조

■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과일 수확용 상자재배
기술개발

■ 정책동향

친환경농업·녹색축산 기금 1% 저리 융자

■ 해외 농업정보

중국, 국가비축분 옥수수 지난해보다 일찍 판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4월 마늘 가격은 2014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4월 수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월과 평년보다 각각 28%, 3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산 마늘 생육은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결주가 적고 생육 자체도 양호하며 시설봄감자와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4월 전체 수미 출하량은 작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불량 씨감자, 범망 악용해 유통...감자농가까지 피해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감자, 양배추

- 감 자 : 감자 수미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가 시작되어 전월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36,000~41,000원/2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과 평년보다 높은 5,200~6,200/8kg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4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톤 이상 남아있고, TRQ 도입 계획 등으로 평년(5,734원/600g)과 비슷할 전망
- 마늘 : 마늘 4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정부 비축량 방출, TRQ 도입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3,400~3,600원/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광남일보, 한국농어민신문)

- ▶ 전남産 농수산물 해외 수출 호조
- ▶ 대형마트,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 이어 과일 당도 전쟁
- ▶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시행기관 다양화
- ▶ 중국 내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판매관 '준비 미흡'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과일 수확용 상자재배 기술개발
- ▶ 전남 고흥군, 고품질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교육 실시
- ▶ 담양군, 벼 종자소독으로 키다리병 완전 '예방'
- ▶ 유기농으로 '생명의 땅 무안' 실현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친환경농업·녹색축산 기금 1% 저리 융자
- ▶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에 전남 5곳 선정
- ▶ 농식품부, 직불제 개정...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연령 74세로
- ▶ 박 대통령-농민단체장 “농업계-기업간 상생협력 필요” 공감
- ▶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상생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중국, 국가비축분 옥수수 지난해보다 일찍 판매
- ▶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5백만 톤으로 하향전망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주간가격 상승에 따른 기술적매도세 유입으로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건조한 세계 옥수수공급 및 장중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거래 유입으로 약보합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중서부지역의 강우 소식으로 약보합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광남일보)

- ▶ ‘고흥커피’ 본격 생산...6차산업 부푼 꿈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15년 가축먹는물 개선 시범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4. 13. ~ 4. 24.(2주)
- 금회신청 : 10개소/6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24, 자부담 24)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은나노양전하 살균기 구입비 지원

▶ '15년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4. 13. ~ 4. 27.(2주)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
- 지원한도 : 10억원(보조 3, 융자 3, 자담 4) *금리3%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지원내용 : 건물의 신축매입임차비, 인테리어, 음식조리 및 식육판매 시설 등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현지실사·추천 → 농식품부 선정

▶ 해썹(HACCP) 인증농가 가축질병검사 지원

- 기 간 : '15. 4. 6. ~ 4. 30.(4주간)
- 검사대상 : 50호(소, 돼지, 닭, 오리 등)
- 검사항목 : 3종(소 결핵병, 살모넬라균, 오리바이러스성간염)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4.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13)	전주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40	43,600	41,437	↓ 6.4	↓ 1.5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6,000	142,000	186,867	↓ 4.2	↓ 27.2
	고구마(밤)	10kg	28,800	28,800	27,960	19,400	24,567	↑ 48.5	↑ 17.2
	감자(수미)	20kg	38,600	35,200	35,200	18,150	24,957	↑ 112.7	↑ 54.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480	500	478	360	1,133	↑ 33.3	↓ 57.6
	양배추	10kg	6,000	6,000	6,020	3,800	5,691	↑ 57.9	↑ 5.4
	오이(다다기계통)	15kg	44,000	32,667	37,867	36,667	38,142	↑ 20.0	↑ 15.4
	애호박	8kg	24,200	18,400	23,120	20,200	17,940	↑ 19.8	↑ 34.9
	토마토	10kg	34,000	29,600	29,720	33,550	34,621	↑ 1.3	↓ 1.8
	무(월동)	1kg	510	500	480	435	478	↑ 17.2	↑ 6.7
	당근	20kg	22,200	22,200	20,800	24,100	27,727	↓ 7.9	↓ 19.9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50,000	803,167	↑ 26.2	↑ 2.1
	풋고추	10kg	52,600	38,000	71,600	56,150	45,500	↓ 6.3	↑ 15.6
	마늘(난지)	10kg	34,600	34,600	35,200	27,400	36,977	↑ 26.3	↓ 6.4
	양파	1kg	710	670	656	640	906	↑ 10.9	↓ 21.6
	대파	1kg	1,570	1,450	1,518	1,070	1,491	↑ 46.7	↑ 5.3
	파프리카	5kg	25,200	26,400	26,200	30,100	33,233	↓ 16.3	↓ 24.2
	방울토마토	5kg	22,200	23,000	16,400	24,800	24,042	↓ 10.5	↓ 7.7
	딸기	1kg	8,600	7,900	8,400	8,150	7,719	↑ 5.5	↑ 11.4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800	63,800	62,400	83,800	77,166	↓ 23.9	↓ 17.3
	배(신고)	15kg	39,200	39,800	39,520	45,200	45,071	↓ 13.3	↓ 13.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13)	전주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28,000	528,000	534,000	569,542	-	↓ 6.2
	들깨	45kg	428,000	426,000	426,000	450,000	377,333	↓ 4.9	↑ 13.4
	새송이버섯	2kg	8,200	8,400	8,640	8,200	8,660	-	↓ 5.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10	6,458	6,611	6,063	6,007	↑ 5.7	↑ 6.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88	1,828	1,908	1,988	1,736	↓ 5.0	↑ 8.8
	닭고기	1kg	5,291	5,445	5,534	5,646	6,144	↓ 6.3	↓ 13.9
	계란(특란)	10개	1,952	1,968	1,944	2,032	1,880	↓ 3.9	↑ 3.8
	우유	1리터	2,548	2,548	2,544	2,542	2,286	↑ 0.2	↑ 11.5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4. 13.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87 천원	4,590 천원	4,128 천원	↑ 4.3	↑ 16.0
	거세	5,471 "	5,336 "	5,293 "	↑ 2.5	↑ 3.4
송아지 (6~7월)	암	2,159 "	2,075 "	1,542 "	↑ 4.0	↑ 40.0
	수	2,606 "	2,516 "	2,226 "	↑ 3.6	↑ 17.1
육우(600Kg)		3,597 "	3,319 "	2,681 "	↑ 8.4	↑ 34.2
젖소수송아지(7일령)		126 "	114 "	16 "	↑ 10.5	↑ 687.5
돼지(110kg)		393 "	398 "	379 "	↓ 1.3	↑ 3.7
육계(원/kg)		1,726 원	1,736 원	2,083 원	↓ 0.6	↓ 17.1
계란(원/특란10개)		1,351 원	1,345 원	1,428 원	↑ 0.4	↓ 5.4
오리(원/kg)		2,500 원	2,500 원	2,833 원	-	↓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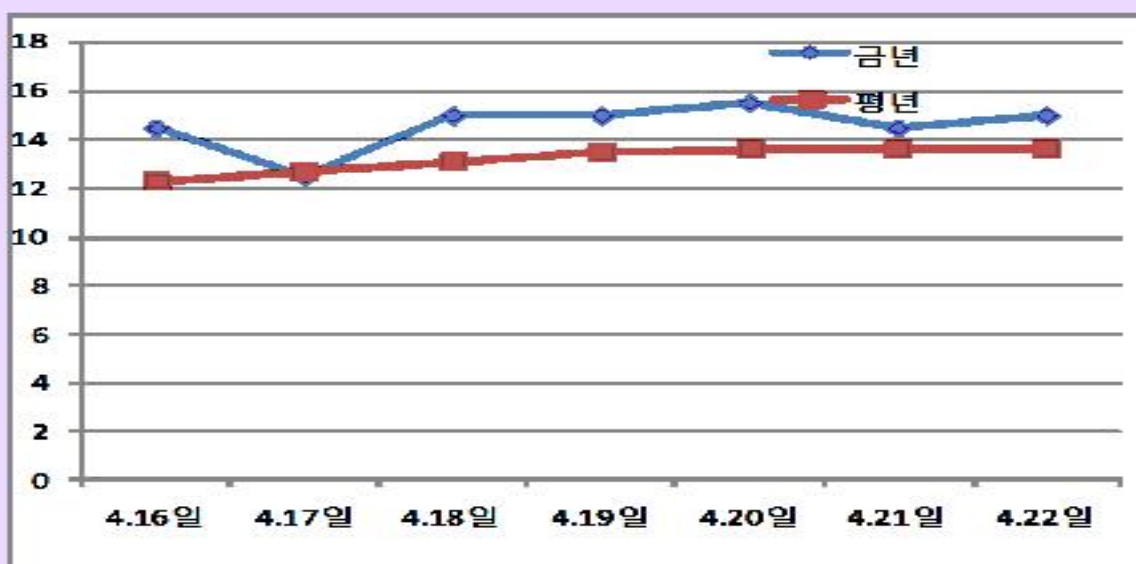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4.6	13.2	1.4	19.1	18.7	0.5	10.0	8.8	0.2	2.7
4. 16.(목)	14.5	12.3	2.2	18	18	0	11	7.9	-3.1	2.3
4. 17.(금)	12.5	12.7	-0.2	18	18.4	-0.4	7	8.2	1.2	2.5
4. 18.(토)	15	13.1	1.9	20	18.6	1.4	10	8.5	-1.5	2.8
4. 19.(일)	15	13.5	1.5	17	18.8	-1.8	13	9.1	3.9	3.3
4. 20.(월)	15.5	13.6	1.9	20	19	1	11	9.4	1.6	3.3
4. 21.(화)	14.5	13.6	0.9	20	18.9	1.1	9	9.4	-0.4	2.7
4. 22.(수)	15	13.6	1.4	21	19	2	9	9.4	-0.4	2.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수급 동향

마늘 · 감자 가격 및 생산 동향

□ 가격 동향

- 4월 마늘 가격은 2014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말 기준, 난지형 마늘 산지가격은 대서종이 kg당 3,200~3,300원, 남도종이 3,000~3,300원 내외로 조사되었다. 최근 산지 단계에서의 통(피)마늘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마늘 4월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상품 kg당 3,508원(중품 2,984원)으로 평년과 비슷하다. 깐마늘 5대 도매시장 4월 평균 가격은 상품 kg당 5,312원(중품 4,782원)으로 평년보다 3% 낮다. 저가의 2013년산 마늘이 점차 소진되면서 4월 깐마늘 가격은 전월보다 7% 상승하였다.
- 4월 수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1,410원(중품 25,881원)으로 전월과 평년보다 각각 28%,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장고랭지감자 및 시설봄감자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월 대지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54,327원(중품 33,094원)으로 전월과 평년보다 각각 21%,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생산 동향

- 3월말 현재까지 2015년산 마늘 생육은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결주가 적고 생육 자체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마늘 생육은 ' 좋음' 24%, '비

숫'62%, '나뭇'14%이다. 2015년산 마늘의 경우 호남, 경남, 제주 등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육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남도종 주산지인 호남과 제주는 병충해와 결주가 적고 대서종 주산지인 경남의 마늘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 지역의 난지형 일부가 병충해, 가뭄의 영향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중부권의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생육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난지형 대서종 재배 확대로 전체 마늘 단수는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산 생산량은 단위당 수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보다 2% 적은 32만 2천 톤으로 전망되나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시설봄감자와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4월 전체 수미 출하량은 작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은 가공업체 구매로 저장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작년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시설봄감자 출하량은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봄감자와 노지봄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5월 수미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지봄감자 출하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하지만 시설 봄감자 출하량은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불량 씨감자, 범망 악용해 유통…감자농가까지 피해

- 증식 목적 판매·생산된 종자, 판매자가 전량 매입시 ‘종자보증’ 필요 없어 -
 - 유통상인 ‘전량매입 유혹’ 농가에 식용감자 심게 해…원천적 차단 급선무 -
- 정상적이지 않은 일명 불법·불량씨감자 유통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생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불법·불량씨감자 유통업자들은 종자산업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보완과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 씨감자 업계에 따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불량씨감자 유통이 정부의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범망을 피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불법·불량씨감자 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자산업법을 악용하는 예다. 현행 종자산업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6조 1항 2호에는 증식 목적으로 판매해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다.
- 그런데 유통상인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씨감자나 아닌 식용감자를 농가에게 주면서 전량 매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씨감자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사항이 불법이라고 고지하면 유통상인들은 “현행 법에 증식 목적으로 내가 종자를 판매하고 다시 모두 매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불법이냐”고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인다고 얘기한다.

- 이렇다 보니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감자생산 농민들이다. 정식으로 생산된 씨감자가 아닐뿐더러 식용감자를 재배했으니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노동비와 방제비 등 생산비가 정식 씨감자를 심었을 때와 똑같이 투입됐지만 손에 쥐는 생산은 크게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이처럼 유통상인들이 주는 불량·불법씨감자를 심는 이유는 법에 명시한 ‘전량 매입’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판로에 애를 먹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전량 매입을 한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한 씨감자 생산업체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내용과 농가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불량·불법씨감자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생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씨감자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해 불법씨감자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현재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재하우스 330㎡ 이상, 육종 포장 30a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1500배 이상 현미경 1대, 발아시험기 3대 등의 시설과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임대 가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필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식으로 생산되는 씨감자의 양이 얼마인지도 알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정식 씨감자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니 시중에서 얼마의 물량이 부정·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알 길이 없는 셈이다.

- 또 다른 씨감자 생산업체 관계자는 “불법·불량씨감자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상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하는 민간업체들은 물론 감자 생산농가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비한 제도는 하루 빨리 보완하고 씨감자 불법유통 단속에 더욱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체나 종자관리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상 등 소매상의 유통도 각 지원별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불량·불법씨감자의 유통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15. 4. 7.)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감자, 양배추

○ (감 자)

- 감자 수미 가격은 시설봄감자 출하가 시작되어 전월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36,000~41,000원/2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과 평년보다 높은 5,200~6,200원/8kg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4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 톤 이상 남아있고, TRQ 도입 계획 등으로 평년(5,734원/600g)과 비슷할 전망

○ (마 늘)

- 마늘 4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정부비축량 방출, TRQ 도입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3,400~3,600원/kg 전망

※ TRQ(Tariff rate Quotas)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전남産 농수산물식품 해외 수출 호조

- 두원농협 등 17개 업체 685만 달러 수출계약 -
- 전남도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농수산물식품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이끌어 냈다.
-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목포에서 중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 68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현장에 상주시켰다.
-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수출 통관 절차와 수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수출 통관 절차 컨설팅 코너를 운영, 참가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상담회에서는 도내 75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해 수출상담을 실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계약을 이끌어 냈다.
- 참가 바이어별로는 중국 대련가지상무유한공사가 두원농협 유자가공공장(고흥)과 유자차 200만 달러, 맥녹(보성)과 녹차가공식품 50만 달러, 수목바이오(장흥)와 헛개음료 50만 달러 등 총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미국의 H-마트는 매일식품(순천)과 장류 100만 달러 등 4개사와 19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식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중국의 영순락장상무유한공사는 한국전북연구소(나주)와 전북가공식품 100만 달러, 말레이시아 김스유통은 다압매울영농조합과 매실가공식품 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명의 바이어가 도내 17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과 68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 또 수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러 바이어들이 도내 수출기업들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여 가격 협상 및 현지 공장 방문을 통한 추가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많아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 배유례 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들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우수한 해외 바이어 발굴에 노력하고 이번 수출상담계약 건이 실질적 수출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대형마트,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 이어 과일 당도 전쟁

- 매장 진열기한 1~2일 단축 방침...농가에 큰 압박 -

- 홈플러스의 신선식품 최저가 판매 선언으로 촉발된 대형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롯데마트가 사과·배·참외 등 주요 과일의 당도 취급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지 출하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롯데마트는 1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품질 혁신 경영을 선포했다. 산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과일의 당도 선별작업을 강화하고 산지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확대해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이에 따르면 기존 사과·수박·참외 등에 한정했던 당도 선별 대상 과일 품목을 감귤·멜론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체 취급 과일 중 당도 선별 대상 품목 비율을 기존 26%에서 57%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업체 측의 복안이다. 기준 당도 또한 품목별로 1브릭스(Brix)씩 높인다. 사과는 현재 12브릭스에서 13브릭스로, 배는 11브릭스에서 12브릭스로 각각 올리고 수박·참외·감귤은 9브릭스에서 10브릭스로 상향한다. 아울러 매장 내 진열기한을 채소·과일·축산·수산물의 경우 평균 1~2일 단축해 보다 신선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업체의 이 같은 방침은 3월 들어 유통업계 내에 거세게 일고 있는 가격 할인 바람에 더해 산지에 또 다른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월12일 홈플러스는 500개 주요 신선식품의 매장 판매가격을 연중 10~3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3월26일~4월8일까지 진행하는 ‘창립 16주년 기념 고객 감사 대축제’를 통해선 일부 신선·가공식품을 최대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 업체들이 주요 농산물의 매장 판매가격을 낮추는 데 동참하면서 가격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 3~4월은 전통적으로 국산 농산물 유통시장의 비수기로 꼽힌다. 올해 처음 수확한 당근·감자·참외·수박 등 주요 엽근채소·과채류들이 본격적인 출하를 준비 또는 개시하는 데다, 배추·양파 등 지난해 수확해 저장한 채소류들이 겨울철 출하를 마무리하는 때여서다. 게다가 1~2월에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와 칠레산 포도 등 외국산 과일들의 시판이 활성화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 하지만 올해는 일부 수입 과일의 국내 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3월 매출이 줄줄이 전년 대비 역조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행사에 속속 뛰어들면서 국산 신선식품 취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 유통업체발 가격·당도 전쟁은 일부 산지출하조직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중 상시 가격 할인을 선언한 홈플러스의 경우 참외 등 품목별 SKU(상품 취급 가짓수)를 대폭 줄이면서 중간상인(벤더)격인 일부 산지출하조직은 공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대형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판매가격 인하와 취급 당도 기준 상향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면 지난 2년간 침체됐던 농산물 시장이 살아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유통업체의 방침이 자칫 산지 납품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지거나 출하작업 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만큼 업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민신문

■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시행기관 다양화

- 농협·코트라·식품 관련 협회도 참여 -
- ‘생산량 70% 수출’ 원예전문단지, 수출전문단지로 육성 -
- 앞으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우리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에 농협·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식품 관련 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70% 이상인 원예전문단지가 수출전문단지로 집중 육성된다. 또 할랄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정보 구축·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 등 ‘할랄 식품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관련 기관 관계자, 민간 수출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농식품·수산물 수출 계획' 등을 논의했다.

-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aT를 주축으로 진행하던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들과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농협·코트라·식품 관련 협회 등도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기관을 다양화 했다.
-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전국의 158개 원예전문단지 가운데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70% 이상인 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선 농산물 수출 규모화를 위해 육성 중인 '수출 선도조직'을 현행 수출업체 중심에서 앞으로는 품목별 생산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경험이 없더라도 '(주)한국배수출'과 같이 생산자가 연합해 수출 마케팅조직을 구성한 경우 선도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자격을 완화한다.
- 수출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물류비 지원 방식에도 손을 댄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품목이 물류비 혜택을 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인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 달러 이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우리 제품 간 해외 저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류비 지원기준의 통일을 유도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할랄 식품 수출 확대 방안도 내놴다. 수출개척협의회 내에 '할랄

식품 분과위원회'를 구성, △할랄 정보 구축 △할랄전용 생산단지 조성 △할랄 전문가 양성 △품목별 지원 방안 수립 △할랄 인증 기관 평가·관리 등을 포함한 8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할랄 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할랄 시장에 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공물류 노선 확충, 농식품 공동물류센터 신규 지정(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약 45개소)을 추진하고, 식품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시설자금 48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농가 및 업계, 정부,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중국·할랄 시장 등 거대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77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중국 내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판매관 '준비 미흡'

- 장소 섭외부터 상품 발굴까지 한달만에 초고속 개점 -
- 물량 부족·라벨링 문제 발생...일반 가공식품이 다수 -
- 고품질 농특산물로 중국 고소득층 겨냥 취지 못살려 -
- 당초 명인식품·향토식품 등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포함한 프리미엄 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중국 유명 백화점에 입점 됐던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판매관'이 실제로는 일반 가공식품 위주로 운영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농식품 수출정책 추진방향’에서 중국 유명 백화점에 명인식품과 같은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과 현지 중·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2월 산둥성 연태시에 위치한 대열성(大悅成, 다웨이청) 백화점에 개점한 제1호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판매관’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식품의 취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까지 판매관에 진열된 518개 품목 중 프리미엄식품은 25개로 그 중 15개가 식품 대기업의 상품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리스트에 포함된 명인제품과 향토식품은 5개로 파악됐으나, 입점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제품들도 스낵 등 식품대기업 상품이 대부분이며, 중국 수출유망상품으로 각광받는 막걸리는 2종류(4개 품목)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애초 계획과는 달리 일반식품이 주로 입점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및 농협 등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제품 추천을 요청했으나 상품 발굴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4일 입점 계획이 발표된 후, 판매관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월 10일. 장소 섭외부터 상품 발굴까지 모든 과정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셈이다. 농식품부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토식품과 명인제품 입점은 더욱 어려웠다. 유명 향토식품 및 명인제품이 거론됐으나 공급물량 부족과 라벨링 규정 등의 문제로, 일부 전통주와 한과 제품이 후보에 올랐고, 그 중 통관이 비교적 쉬운 전통주만 선적할 수 있었다. 방상진

한국명인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된 한과 제품이 거의 없었고, 대량 제조가 쉽지 않아 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다”고 전했다.

- 여기에 농식품관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수익성을 고려해, 인지도가 낮은 식품 취급을 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방 국장은 “10개 품목을 추천했는데 벤더가 실제 수출을 진행한 제품은 그 중 1개였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강 과장은 “당분간은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식품을 알리는 데 큰 의미를 두면 좋겠다”며 “현재 원래 취지에 부합한 상품을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 식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아스파라거스 과일 수확용 상자재배 기술개발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건강 기능성 고급채소인 아스파라거스를 토양재배가 아닌 과일 수확용 상자에 인공토양을 넣어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건강 기능성 고급채소인 아스파라거스를 토양재배가 아닌 과일 수확용 상자에 인공토양을 넣어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 기술원에 따르면, 국민 식생활의 고급화와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기능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숙취해소·피로회복은 물론 콩팥의 기능을 돕고 이뇨작용에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건강 기능성 채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아열대 지방부터 지중해 연안과 온대 북부지방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심게 되면 정식후 2~3년째부터 5~10년 동안 연속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포장에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토양 병해충이나 생리장해 등으로 수량이 감소되거나 정식 후 첫 수확기까지 2~3년이 소요돼 연작장해를 회피하고 첫 수확기 단축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필요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과일수확용 컨테이너 상자를 이용한 용기재

배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기술원이 개발한 과일수확용 컨테이너 상자를 이용한 용기재배 기술은 20kg(40ℓ)용 과일 수확상자에 원예용 인공상토를 넣고 아스파라거스 묘를 심어 1년간 상자 속의 근주를 양성하여 이듬해 3월부터 아스파라거스 새순을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 상자 용기재배 기술은 토양재배와 비교했을 때 수확 새순의 개수는 27%가 많았지만 10a당 수량은 465kg으로 토양재배의 97% 수준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자 용기재배 인공 배지용토는 시판 바이오상토가 가장 새순의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25g 이상의 특대 상품비율도 82.5%로 가장 높았다.
- 이밖에 상자 당 적정 심는 주수를 설정하여 육묘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아스파라거스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들의 종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손동모 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관은 "상자 용기재배 장점은 필요에 따라 시설과 노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한 포장에서의 연작장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식재 후 다음해 바로 수확이 가능하며 밀식으로 초기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로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손 연구관은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및 관리노력이 비교적 적게 들어 농촌의 고령자와 도시에서 귀농한 은퇴자들에게 알맞는 실버 맞춤형 작목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면서 "국내 수요뿐 만 아니라 수출 유망작목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고흥군, 고품질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교육 실시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중)은 딸기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품질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교육 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목별 딸기연구회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딸기 육묘기를 앞두고 좋은 어미모 선택, 병해충 방제, 꽃눈분화 등 적정 육묘관리에 의한 우량한 모종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영준 박사는 “딸기 재배에서 모종이 반농사”라면서 “꽃눈분화 촉진을 위해서는 5~15℃의 온도와 야간 13시간 이상의 일장 관리가 필요하고, 정식(定植) 전 현미경 검사를 통해 꽃눈분화 유무를 확인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딸기 모를 적용약제 처리 후 정식 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 재배과정에서 각종 병해충과 생리장해가 발생하면 가격이 높은 시기에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는 적기 교육과 함께 재배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고흥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8ha로 연간 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재배방식은 토경재배에 비해 수량이 30% 증수되고 노동력이 60% 절감되는 수경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재배농가별 정보통신을 결합한 ICT 사업을 도입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담양군, 벼 종자소독으로 키다리병 완전 ‘예방’

- 벼 종자 소독 연사회, 온탕소독에 석회유황 더해 99.4%까지 방제 효과 -
-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는 최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과 벼육묘 공급업자, 쌀 품질 고급화 연구회원, 독농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종자소독 연사회를 개최했다.
-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금상을 차지한 담양군은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연속 진입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 기술교육과 더불어 종자로 전염되는 도열병,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및 벼이삭선충 등을 예방하고자 연사회를 실시했다.
- 이번 연사회에서는 기존 화학농약으로 방제한 것보다는 49%정도 가격이 낮고 친환경농자재이며, 99.4%까지 방제 효과가 있는 온탕소독에 석회유황을 더해 이뤄졌다.
- 종자소독은 온탕소독기를 통해 60℃로 끓인 물에 볍씨를 10분간 침지한 후 찬물에 30분간 담근 다음 석회유황(22%) 50배액인 물 20ℓ에 400cc 비율로 희석한 다음 물 온도 30℃에서 24시간 침지하고, 깨끗한 물로 2~3회 씻은 후 볍씨받아기에서 발아시키면 키다리병을 99.4%까지 방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온탕소독기 7대를 구입,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많은 읍면에 배부하고 종자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종자소독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온탕소독 시 물의 온도가 60℃인데, 볍씨를 많이 넣게 되면 물의 온도가 떨어

저 효과가 없으므로 물의 양보다 법씨를 1/10로 넣어 소독하고 일반 화학농약으로 소독할 때는 물 온도가 30℃에서 48시간 또는 24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유기농으로 ‘생명의 땅 무안’ 실현

- 유기 벼 재배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식 확산 도모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달 31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친환경 농업단지대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읍면 산업담당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기 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 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 중 70% 이상을 벼농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벼 작목부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전문가인 전남농업기술원 권오도 박사는 유기 벼 재배기술 강의에서“친환경 유기 벼 재배기술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농업인들의 실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유기농업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이 외에도 쌀 농사 40주 농법 성공사례, 친환경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권 박사는 유기 벼 생산 비결로“육묘는 상자 당 100~130g, 육묘 기간은 30~40일이 적당하고, 조생종을 제외한 모내기는 6월 5일 전·후에 해야 하며, 3.3㎡당 모내기 포기 수는 60주 이하로 심고, 벼 질소질 비료는 성분량으로 9kg이하 사용, 쌀 단백질 함량을

6.5%이하로 줄이는 것”등을 강조했다.

- 김철주 무안군수는 인사말에서“2016년부터 정부정책 전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기농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늘어 날 것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농업 환경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전 군민이 합심하여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친환경농업·녹색축산 기금 1% 저리 융자

- 전라남도는 유기농시대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47억 원과 녹색축산육성기금 103억 원, 총 1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농가 및 업체를 선정, 1%저금리 지원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친환경농업 육성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11건 32억 원, 운영자금 10건 15억 원이고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시설자금 27건 92억 원, 운영자금 5건 11억 원 규모다.
- 융자지원 대상자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경영체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신청 받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의 융자지원 한도는 개별농가 1억 원, 영농법인 및 유통업체와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5억 원 이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 녹색축산 육성기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축산농가 2억~5억 원, 영농법인 8억 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 전라남도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5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은 2015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하고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조성해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과 가공·유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전라남도는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전국의 50% 수준인 4만 4천ha,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3천6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에 전남 5곳 선정

- 전남도는 올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전남 5개소를 비롯, 전국 30개소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여수농협, 여천농협, 나주 금천농협, 장성 남면농협, 영암 삼호농협 등이다.
- 현재 여수, 곡성, 구례 등 도내 8개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aT 공모사업에 5개소가 추가로 선정돼 국비 9억 6천300만원을 지원받는다.
- 선정된 단체들은 조합원 및 참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자재 등의 설치·구입·인테리어 소요 비용의 30%를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홍보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 농업인이 포장에서 매장 진열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농협 등 운영 주체가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직거래 장터 등 aT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과장은 “생산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는 지역 농가를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상생과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남도일보

◆ 농식품부, 직불제 개정...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연령 74세로

- 앞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상한이 확대되고,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도 밭 농업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경영이양 및 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 상한 규정이 신설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연령 범위가 65~70세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74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2회 추가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환경보조금을 받은 농지의 경우 기존에는 밭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밭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경영이양은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해 4ha이다. 조건불리 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우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로 정했다. 법인은 밭 10ha, 논·초지 각각 50ha이다. 경관보전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를 적용한다.
- 밭 농업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밭 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ha로 통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돼 올해 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적용된다. 경관보전 보조금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박 대통령-농민단체장 “농업계-기업간 상생협력 필요” 공감

-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낸 가운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계인력 육성, 여성용 농기계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농민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오찬간담회에는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40여명의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우리 농수산업을 한단계 끌어

올리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성장산업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평소 어떻게 하면, 농수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동에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 학생들도 농촌 학생들을 화상으로 교육하는 등 ICT를 결합하는 사례가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이들이 농수산업 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 김진필 회장은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중 FTA를 계기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후계인력 육성, 환경 투자 등에 중점을 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감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도 강조했다. 또 성효용 회장도 "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해서 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찬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회가 기업과 농수산업계간 상생협력의 가교역할을 해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고, '농식품 상생경영자문단'을 구성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생협력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호 윈윈

하는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 더불어 여성농기계와 관련, 이길성 회장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농촌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한·중 FTA로 피해가 큰 밭농업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들이 농기계 사용 등에 애로가 있는 만큼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을 이끌고 가려면 사용자 친화적인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 회장은 정책금리를 1%대로 낮춰줄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 또한, 이흥기 한국4H본부 회장이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농촌발전 경험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년 교육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 그밖에 농민단체장들은 △국산 우유소비 확대 위한 학교급식 제도화 △할랄 식품시장 개척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한·베트남 FTA 관련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종자주권 확보 △스마트팜 등 시설현대화 투자지원 △농업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상생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김제시(중촌마을)에 농촌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범조성한다.
- 중촌마을은 기 조성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50kw/h)과 유리온

실(600평)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모델을 창출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열을 유리온실의 냉·난방용으로 공급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온실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 친환경에너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관광객 유치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넘비시설이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펄피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마을 조성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연계한 농촌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버려지는 열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팜, 친환경 에너지 체험·관광 프로그램(짬질방, 숙박 등) 등 창조적 소득모델을 발굴하고,
- 인근지역에 에너지(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마을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의 주민상생협력사업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형 모델을 포함한 ‘15년 신규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 선정결과를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

- 이로써, 기존의 3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 각지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출처 : 농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중국, 국가비축분 옥수수 지난해보다 일찍 판매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이번주에 국가비축분 옥수수를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부지역의 4개 주의 국가곡물창고는 화요일 경매에서 옥수수 317,500톤을 공급할 것이며 다른 주의 경매도 곧 시작될 것이다. 옥수수 판매는 중국정부의 2014/15년 국가재고계획이 끝나기 전에 시작될 것이다. 이는 국가재고계획으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남동부 옥수수 재배지역의 국가재고계획을 4월말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2014/15년 현재까지 76백만 톤 이상의 사상최대 옥수수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국내수확량의 35% 이상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 국내 옥수수가격은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5백만 톤으로 하향전망

러시아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유통년도 2015/16년 기간동안 25백만 톤의 밀을 수출할 것이며 이는 이전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2월, 러시아 농업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농업부 장관은 2015년 곡물수확 전망에 대해서도 100백만 톤이라고 전했다. 이는 2014년 사상최대 수확물량인 104백만 톤 대비 하락한 수준이며 이는 부진한 겨울작황, 수입비용, 루블화 하락에 따른 높은 이자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4. 6.(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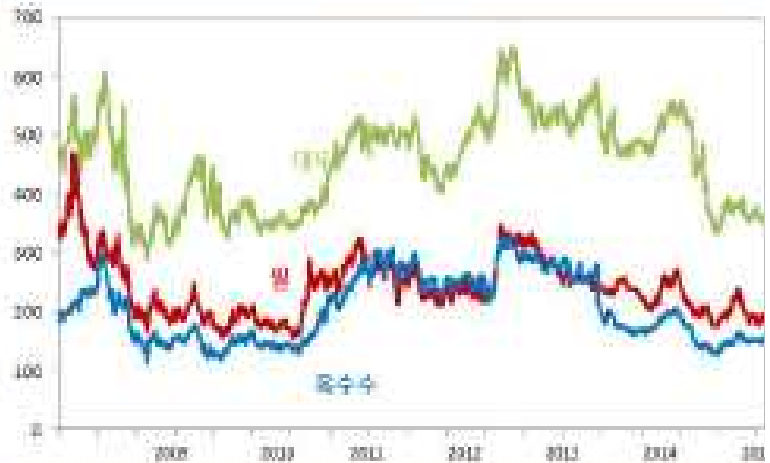
곡물가격, 기술적매도세 및 강우전망으로 하락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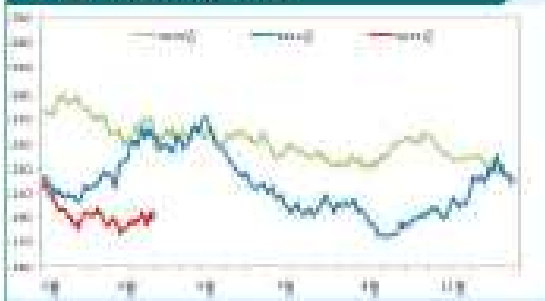
단위 : US\$/bu

구분	기준일 (15.4.6)	전일대비	전월평균 (15.3)	2014 평균
밀	193.88	▼1.6%	187	216
옥수수	151.57	▼0.4%	151	164
대두	359.49	▼0.8%	360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하계연밀종)에,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종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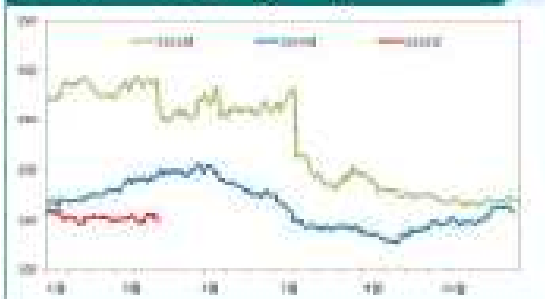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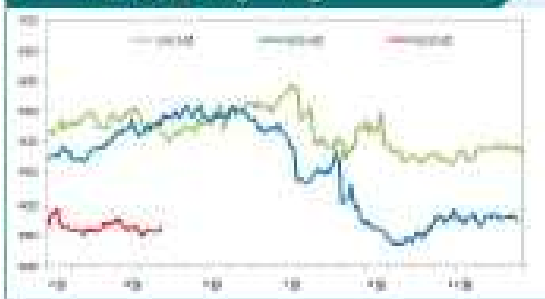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간가격 상승에 따른 기술적매도세 유입으로 하락했으며 미국 대평야 지역의 한차례 강우전망 역시 가격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밀 재배 지역의 강우소식도 악세를 이끌었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건조한 세계 옥수수공급 및 상승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거래 유입으로 억눌림 마감했음. 또한 미국 중서부지역 전역의 강우소식 역시 하방압력을 더했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중서부지역의 강우소식으로 억눌림 마감했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rei.co.kr>

관련 동향

-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은 수출수요 부진으로 하락했으며, 대두 수출가격 역시 수출수요 약화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 WTI 선물유가는 미국 원유 생산량 감소, 이란 핵협상 난항 및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미국 원유재고 증가소식으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일평균 ('15.3)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일	230	▼2.1%	229	261	284
	옥수수	174	▼3.9%	178	205	265
	대두	388	▲0.5%	389	501	556
	쌀	405	—	411	425	488
환율	원/달러	1,104	▼0.5%	1,113	1,053	1,066
	달러/유로	1,077	▲0.3%	1,06	1,33	1,33
국제유가 (USD/barrel)	WTI	50.09	▲5.2%	47.85	92.97	97.94
	Dubai	52.83	▼1.8%	54.69	96.64	105.32

주 1) 일/US, 2) W/Gulf, 옥수수/US, 3) C/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3.31(수출가격), '15.4.2(환율), '15.4.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회사,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러시아 Sovnakh에 따르면 2015/16년 겨울곡물의 11~12%가 동사했으며 평균치인 10%이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함.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농업회사의 곡물재고는 19.3백만 톤(전년대비 22%증가)이며 그 중 밀은 6.2백만 톤, 보리는 1.6백만 톤, 옥수수는 10.7백만 톤이라고 함.
- 태국 원당기업은 3월 현재로 미국산 옥수수 20,000톤, 대두 15,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고흥커피' 본격 생산...6차산업 부폰 꿈

- 올해 660kg 수확 기대...우주항공축제 기간 전국바리스타대회도 -
- 고흥에서 아라비아커피가 본격 생산되면서 커피농장 관람과 체험을 위한 방문객이 늘고 있다. 또 이달 열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기간에는 전국 바리스타대회가 열리는 등 고흥이 국내 최초의 커피재배지로 주목받고 있다.
- 고흥군에 따르면 군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한 혁신리더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고흥열대농업연구회는 지난 2009년부터 커피씨앗을 파종해 재배를 시작했고, 묘목 생산과 커피마니아들을 상대로 커피시음회를 여는 등 '고흥 커피' 재배를 주도해왔다.
- 하지만 생산량이 적고 대규모 재배로 이어지지 못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2년 과역면 문화마을에 정착한 주동일씨(59·커피마을 대표)가 대량 재배와 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농촌 6차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성장해가고 있다.
- 전북 익산에서 커피재배를 시도하던 주씨는 기온이 높고 재배환경이 우수한 처가인 고흥군 과역면으로 이주해 5818㎡의 재배면적에 육묘장과 체험교육장, 커피시음장을 갖추고 있고, 커피 재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무료로 바리스타 체험행사도 열고 있다.
- 또 최근 교육청 지정 체험농장 및 선도농업인 교육 농장으로 지정되면서 광주 등 대도시에서도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개관한 과역 참살이조가비촌에도

관람을 위한 커피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단체방문객의 숙박까지 제공하고 있다.

- 지난 3일에는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고흥을 방문한 이낙연 도지사도 이곳 커피농장을 방문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주동일씨는 "커피 유통업자들의 구매 요청이 있지만 판매 목적의 유통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곳 커피농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만 체험교육과 시음 용도로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 현재 고흥에서는 기존 고흥열대농업연구회의 5농가와 주씨의 소개로 고흥으로 이주해 커피농사에 나선 귀농인 등이 설립한 한국 커피생산자 영농조합의 5농가 등 1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 5~6년생이 9500그루, 2~4년생이 4만5950그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생두 생산이 가능한 5년생 이상에서 660kg의 생두를 생산할 전망이다.
- 커피나무 한 그루당 생두 70g정도가 생산되지만, 시중에서 수입 원두(로스팅) 거래가격은 kg당 2~15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원두 생산에 따른 수익은 7000만원이 조금 넘지만, 체험관광 상품으로 이어질 경우 주씨 농장에만 2만명의 체험교육이 가능해 수억원의 관광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커피전문가인 강병호 한국바리스타스쿨 대표는 "커피나무는 10~15년생이 가장 활발한 시기여서 앞으로 고흥의 커피산업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고흥군도 최근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나섰다.
- 김종진 군 농업축산과장은 "군이 시행하고 있는 비전5000 프로젝트

트 전략 품목으로 커피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10ha까지 재배 면적을 늘리고 체험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모델로 구축해 귀농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창조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광남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15년 가축먹는물 개선 시범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4. 13. ~ 4. 24.(2주)
- 금회신청 : 10개소/6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24, 자부담 24)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은나노양전하 살균기 구입비 지원
 - ※ 은나노양전하살균기 : 은을 이용해 양전하를 일으켜 은 이온수를 만들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균을 제거하는 기계

◆ '15년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4. 13 ~ 4. 27.(2주)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
- 지원한도 : 10억원(보조 3, 융자 3, 자담 4) * 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건물의 신축매입임차비, 인테리어, 음식조리 및 식육판매 시설 등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현지실사·추천 → 농식품부 선정

◆ 해썹(HACCP) 인증농가 가축질병검사 지원

- 기 간 : '15. 4. 6. ~ 4. 30.(4주간)
- 검사대상 : 50호(소, 돼지, 닭, 오리 등)
- 검사항목 : 3종(소 결핵병, 살모넬라균,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주간
29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